

노년기 애착연구와 앞으로의 과제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애착이론을 노인전집에 적용하는 최근의 연구들을 개관하고 미래연구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 노인들의 애착관계에 관해 수행된 연구들을 5가지 주제(애착대상의 변화, 신에 대한 애착, 애착양식의 변화, 애착과 보살핌 제공자-수령자간의 관계 및 애착과 노년기 안녕 및 사별의 관계)로 구분하여 개관하고 이러한 주제들을 역점두어 연구하면서도 후속연구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5가지 과제를 제안하였다. 즉 애착유대와 일반적인 애정적 유대의 구분, 애착척도의 문제, 중단연구의 필요성, 애착행동체계와 다른 관련 행동체계들의 상호작용 문제 그리고 거부형 애착비율의 증가문제가 제안되었다. Bowlby가 개인의 애착표상은 ‘요람부터 무덤까지’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애착에 관한 연구는 영아기나 아동기의 애착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성인기에서의 애착연구는 낭만적 관계나 결혼관계에서의 애착문제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노년기는 분리와 상실,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겪기 쉬운 시기이므로 이 시기 동안의 애착관계에 대한 연구는 노년기 안녕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논의되었다.

주요어: 애착, 애착인물, 노년기, 안녕

개인의 애착표상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향을 준다는 Bowlby(1982)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애착연구들은 영아와 아동의 애착에만 관심을 가졌으므로 주로 양육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인생초기에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성인기 동안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념에 기초하여, 애착연구는 성인기의 낭만적 관계나 결혼관계로 확대되었고(Hazan & Shaver, 1987; Mikulincer & Shaver, 2003; Rholes & Simpson, 2004) 최근에는 노인들의 애착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의 애착행동은 가장 큰 의존과 요구의 시기인 인생초기와 후기에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으므로(Bowlby, 1982), 성인후기의 애착관계에 대한 연구는 인생초기에

* 교신저자: 장휘숙, E-mail: hsjang@cnu.ac.kr

대한 애착연구와 상응하게 인간 애착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으로 노년기 애착연구를 자극한 중요한 요인은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이다. 사회과학자들은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특히 노년기의 상실과 분리는 애착문제가 다른 어느 연령단계에서보다 노인들에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노화와 함께 각 개인은 가까운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상실하고 성인 자녀들과 역할역전을 경험하며 배우자와 사별하는가 하면 신(神)이나 종교적 인물에 대해 강한 의존을 나타내는 등 다양한 관계문제에 직면한다. Bradley와 Cafferty(2001)는 안정된 애착은 노년기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첫째,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더 긍정적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노부모를 보살피는 성인자녀들이 더 적은 부담감을 경험하고 더 빈번한 보살핌 행동에 가담하게 한다.

셋째, 애착인물의 상실 후에는 부적응적 슬픔을 더 적게 경험하게 한다.

넷째, 더 큰 안녕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애착은 노년기의 적응과 안녕에 결정적 영향을 주므로 이 논문에서는 노년기의 애착관계에 관한 연구를 다섯 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개관하려고 한다. 즉 애착대상의 변화와 신에 대한 애착, 애착양식의 변화, 애착과 보살핌 제공자-수령자간의 관계 그리고 애착과 노년기 안녕 및 사별의 관계를 차례로 개관하고 이 분야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후속연구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을 제안하려고 한다.

1. 애착대상의 변화와 호위대 모델

연령증가와 함께 개인의 애착대상의 수는 변화하는가? 물론 애착대상은 근접추구 기능과 분리 저항 기능, 안전기지 기능 그리고 안전한 피난처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Hazan & Zeifman, 1994).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애착대상이라면, 개인은 그 사람과의 근접을 추구하고 유지하려고 하며 그와 분리되면 저항해야만 한다. 또한 그 사람이 존재하면 개인은 그를 안전기지로 하여 멀리 떨어진 곳까지 탐색할 수 있어야 하고 위협이 지각되면 탐색행동을 멈추고 위안과 안정을 얻기 위해 즉시 그에게로 후퇴해야만 한다.

Carstensen(1992)의 사회정서적 선택성 이론에 의하면, 연령증가와 함께 개인의 애착관계는 더 선택적으로 변화하고 가까운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들의 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애착대상의 수는 감소할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일찍이 Antonucci(1986)는 각 개인에게 정서적으로 가깝고 중요한 사람들을 기술하기 위하여 호위대 모델(convoy model)을 개발하였다. 여기서 호위대란 개인과 인생경험이나 도전, 성공, 실패 혹은 실망을 공유하는 사람들로서 보통 개인이 학습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호위대 중에는 개인의 노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희망을 좌절시키거나 성공을 방해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 Antonucci(1986)에 의하면, 영아의 애착대상인 양육자가 안전기지(secure base)가 되어줌으로써 영아가 마음 놓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호위대도 세상의 다양한 특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일한 안전기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호위대는 상황의 변화나 시간 경과와 함께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호위대의

수나 구성은 연령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그 증거로서 Antonucci와 Akiyama 및 Takahashi (2004)는 8세부터 93세까지의 일본인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호위대 모델(convoy model)을 사용하여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와 구성에서의 연령관련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내부원, 중간원, 외곽원의 세 가지 수준을 포함하는 호위대 모델에서 내부원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매우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되며, 그들과의 관계는 애착관계로 가정된다. 중간원은 매우 가깝지만 내부원에 있는 사람들만큼 가깝지는 않은 사람들로서 이들 역시 개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또한 외곽원은 내부원이나 중간원 속의 사람들만큼 가깝지는 않지만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외곽원의 구성원들은 이웃이나 직장동료와 같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서로 호의를 베풀기도 하지만 이사를 가거나 직장이 바뀌면 서로의 관계가 종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비록 미국과 일본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Antonucci 등(2004)의 연구에서 내부원의 구성원들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그 예로서 8-19세 집단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내부원의 구성원으로 보고하였으나 21세 이후부터 내부원 속에 배우자가 등장하여 어머니와 배우자 그리고 아버지 순으로 자주 언급되었다. 그러나 30-59세 집단에서는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관계로 언급되었고, 그 다음은 자녀 그리고 어머니가 포함되었다. 또한 60-79세 집단은 내부원 속에 배우자와 아들 및 딸을 포함하였고 미국에서는 이들 외에 자매들도 내부원 속에 포함되었다. 80세 이후에도 배우자와 아들, 딸은 여전히 내부원의 구성원이었으나 일본에서는 이 연령에서 처음으로 손자녀가 내부원 속에 등장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전생애의 모든 시점에서 전형적

인 개인의 애착인물은 10명 내외임이 밝혀졌고, 연령과 인생단계 그리고 규범적인 인생과업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인물들이 위계 속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소수의 인물들은 여러 해 동안 개인의 목록 속에 남아있다는 것도 확인될 수 있었다. 물론 문화적 차이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노화와 함께 직장 동료들 상실했고 지역사회 다양한 집단에도 점점 더 적게 참여하게 됨으로써 노인들은 더 큰 사회적 연결망으로부터는 소외되지만, 그들의 핵심적 애착관계가 중요하지 않거나 소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Antonucci 등(2004)의 호위대 모델을 사용하여 대학생들의 애착관계를 연구한 장휘숙(2006)의 연구에서는 미국이나 일본과 동일하게 내부원 속에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들이 포함되었으나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도 내부원 속에 포함되어 차이를 나타내었다. 흥미로운 것은 안정형 애착과 불안/양가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대학생들이 회피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내부원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노년기를 포함하여 전생애 동안의 한국인의 애착대상 변화를 조사하고 미국이나 일본과의 차이를 확인하는 동시에 애착대상의 수와 애착양식과의 관계도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신에 대한 애착

애착대상의 변화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연구 주제는 노인들이 상징적 혹은 종교적 인물(신이나 부처님, 예수님)로부터 점점 더 많은 지원과 위안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Kirkpatrick(1994)은 신에 대한 애착은 애착의 전형적인 범주인 근접추구, 안전기지, 안전한 피난처 및 분리저항을 그대로 포함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예로서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신과 소통함으로써 신에 대한 근접을 추구하고 신과의 개인적 혹은 상호작용 관계를 유지하며 신을 안정성과 위안의 근원으로 활용한다. 특히 죽음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질병 혹은 상해와 같은 위협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개인은 안정성과 위안을 얻기 위하여 안전한 피난처로서의 신에게로 향한다. 물론 신념의 상실과 같이 신으로부터의 분리는 불안을 야기시키고 분리저항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신에 대한 애착은 영아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과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

지금까지 신에 대한 애착은 성인초기나 중기의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나 최근 노년기의 궁극적 애착인물로서 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Cicirelli, 2004). 그 이유는 노년기에 이르면 인생 초기에 애착인물로서 기능했던 부모나 아주머니, 아저씨, 형제자매, 혹은 다른 순위 친족들이 이미 사망하고, 자주 배우자와도 사별한 상태에 있으므로 노인들은 지원적인 애착대상의 존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신과 같은 상징적 인물들이 노인들의 궁극적 애착인물로서 선택되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노인들의 신에 대한 애착을 연구한 Cicirelli(2004)는 신에 대한 애착의 강도를 점수화한 결과, 강한 종교성을 지닐수록, 더 큰 죽음공포를 가질수록, 애착대상을 상실했을수록, 종교가 기독교일수록, 흑인일수록, 여성일수록,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70-100세 사이에서 더 젊은 사람들이 이 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보다 앞서 Hazan과 Zeifman(1994)의 연구에서도 성인들의 애착인물 목록에서 신이나 예수님이 발견된 바 있다.

신에 대한 애착이 가능한 이유로서 Kirkpatrick(1998, 1999)은 일치가설(correspondence hypothesis)

과 보상가설(compensation hypothesis)을 가정하였다. 전자는 안정된 애착을 갖는 개인들이 신에 대해 동일한 안정된 애착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개인이 갖는 애착을 신에게 그대로 전이시킨다고 제안한다. 대조적으로 후자는 불안정한 애착양식을 갖는 개인들이 신에 대한 애착을 발달시킴으로써 안정된 애착을 보충한다고 설명한다. 보상가설에 의하면,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애착인물을 상실한 상태에 있고 인생후기에 새로운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안정된 애착에 대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신에 대한 애착을 형성한다는 것이다(Long & Martin, 2000). 실제로 노인들은 임박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기 쉬우며, 배우자나 다른 일차적 애착인물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더 강력한 애착인물을 원할 수 있으므로 신에 대한 애착은 이 시기의 중요한 대처전략일 수 있다. 더욱이 신에 대한 애착은 사후에도 영생할 수 있음을 약속받는 것이므로 노인들에게는 최상의 애착인물일 수 있다. Cicirelli(2004)는 종교적 신념과 행동은 자주 인간관계로부터의 안정성이나 지원에서의 지각된 결핍을 보상하는 기능을 한다고 가정하고 일치가설보다 보상가설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모든 문화의 모든 연령의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신이나 천사, 성자 혹은 사망한 조상이나 다른 사망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한다. 배우자의 생존시에 배우자가 애착기능을 하였다면, 그의 사후에도 배우자는 여전히 애착대상으로 기능하고 중요한 인생결정에 대해 남은 배우자와 정신적으로 교감할 수 있을 것이다. 종단연구를 수행한 Wink와 Dillon(2002)은 성별이나 출생동시집단과 상관없이 50대 중반이나 60대 초반부터 영성(spirituality)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노인들의 일부가 애착인물로서 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노년기 동안의 실제적 인물에 대한 애착은 물론 상징적 인물에 대한 애착의 본질과 기능도 역점두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애착양식의 변화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장휘숙, 1997; Feeney & Noller, 1990; Hazan & Shaver, 1987; Mikulincer & Orbach, 1995)은 안정형, 회피형 그리고 불안/양가형으로 분류된 성인들의 백분율(각각 55-60%, 25-30%, 15-20%)이 동일한 범주에 할당된 영아들의 백분율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하고 영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애착양식에서의 안정성을 가정하였다. 문제는 성인후기 동안에도 성인초기나 중기의 애착양식이 그대로 지속되는가이다. 그 이유는 이 시기 동안 배우자나 형제자매 혹은 친구의 상실이 일어나고 의존성이 증가하며 죽어야 할 운명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자기지각과 관계지각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3범주나 4범주의 애착척도를 사용하여 노인들의 애착양식을 연구한 결과들은 일관성 있게 거부형 애착의 비율이 안정형 애착의 비율보다 더 높다고 보고한다. 그 예로서 캐나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Webster(1997)는 연구대상자들의 52.2%가 거부형 애착, 33.3%는 안정형 애착, 11.6%는 두려워하는 회피형 그리고 2.9%는 몰입형으로 분류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물론 이 비율은 젊은 성인들을 연구한 Batholomew와 Horowitz(1991)의 안정형 애착 47%, 몰입형 애착 14%, 두려워하는 회피형 애착 21% 그리고 거부형 애착 18%와 큰 차이를 보여, 노인들이 젊은 성인들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은 거부형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독거노인들을 연구한 Wensauer와

Grossmann(1995)은 피험자들의 54%가 불안정한-억압형(insecure-repressive)으로 분류되었고, 안정형은 42%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15세부터 87세 사이의 남녀 370명을 대상으로 6년에 걸쳐 애착안정성에서의 변화를 연구한 Zhang과 Labouvie-Vief(2004)는 안정형 애착과 거부형 애착이 연령과 함께 증가하고 몰입형 애착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은 젊은 성인들보다 더 안정된 애착을 지니고 있지만 거부형 애착의 비율이 훨씬 더 높고 몰입형의 애착의 비율은 더 낮다는 Kafetsios와 Sideridis(2006) 그리고 Mikulincer와 Shaver(200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왜 높은 비율의 거부형 애착을 나타내는가? 거부형이나 억압형 애착양식의 소유자들은 부정적 정서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정서경험을 억압하거나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어 노년기의 정서조절 방식과 거의 일치한다. 인생 후반의 노인들은 자원에서의 감소를 경험하고 가까운 애착관계를 상실함으로써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 상황을 강조하는 몰입형 애착보다 오히려 이에 대한 방어로써 자기신뢰와 독립을 더 많이 강조하고 상호의존을 덜 중요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Webster(1997)는 노년기 동안 나타나는 거부형 애착의 높은 비율은 배우자나 다른 애착인물을 상실한 노인들이 애착의 정서적 중요성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서 조절과정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Diehl, Elnick, Bourbeau 및 Labouvie-Vief(1998)도 노년기 동안의 거부형 애착양식은 대인간 상실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정서적 애착을 약화시키기 위한 대처전략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비교문화적 연구들은 독립을 강조하는 서구문화에서는 안정형 애착보다 거부적-회피형 애착양식의 비율이 더 높고 동양이나 중동같은 상호의존적

문화에서는 불안-양가형 혹은 몰입형 애착양식의 비율이 더 높다고 보고한다(Rothbaum, Weisz, Pott, Miyake, & Morelli, 2000; Takahashi, 2005). 미국 내에서 7개 인종집단 출신의 50세부터 70세까지 616명의 남녀 성인들을 연구한 Fiori와 Consedine 그리고 Magai(2009)도 인종집단에 따라 애착양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함으로써 노인들이 유의미한 타인들과 관련 맺는 방식은 인종에 따라 그리고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이 연구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안정형 애착의 비율이 높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두려워하는 회피형과 몰입형 애착의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남녀의 사회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는 문화일수록 애착양식에서 성차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Zhang과 Labouvie-Vief(2004)도 개인의 애착은 관계경험으로부터 구성되고 맥락적, 역동적 변화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애착양식의 연령에 따른 변화는 물론 성별이나 사회경제적 수준 혹은 문화에 따라 노년기 애착양식에서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애착과 보살핌 제공자-수령자 간의 관계

인생 후반에 이르면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은 현저하게 축소되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만이 노인의 유일한 가족구성원이 된다. 이 때 노부모의 신체적 쇠약은 만성적 질병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자녀를 보살피는 역할을 하였던 부모들은 자녀로부터 보살핌을 받게 됨으로써 역할역전이 일어난다. Bowlby(1982)는 애착과 보살핌 제공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밀접하게 연결된 행동체계라고 제안하였다. Bowlby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두 가지 개념이 서로 구별된다고 할지라도, 보살핌 제

공행동은 보살핌 제공자와 수령자의 애착표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한다(George & Solomon, 1999; Kuncze & Shaver, 1994).

일찍이 노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보살핌 제공 행동은 의무감이나 죄책감을 회피하려는 소망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었으나 Cicirelli(1996)는 보살핌 행동과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부모에 대한 강한 애착은 낮은 부담감과 연결되는 반면, 의무감은 더 큰 부담감과 연결된다고 주장하였다. Crispi와 Schiaffino 및 Berman(1997)도 안정된 애착양식은 보살핌 제공에 기인한 스트레스의 효과를 완충한다고 보고하였고 Lechich(1996)도 안정된 어머니-영아 애착유대는 병든 노인을 보살피는 성인자녀의 감정이입을 증진시킨다고 제안하였다.

흥미롭게도 Steele과 Phibbs 및 Woods(2004)는 다른 연구자들이 자기보고질문지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Ainsworth의 낯선 상황절차와 유사한 분리-재결합 에피소드를 사용하여 치매 노인의 행동과 AAI(Adult Attachment Interview)로 측정된 성인 딸의 애착표상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애착행동의 유도물로서 재결합 상황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치매의 심각성이 통제된 후에 조차도 어머니편의 안정된 행동은 성인딸의 애착표상과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역할이 역전될 때조차도 애착 패러다임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보살핌을 제공하는 성인자녀와는 대조적으로, 타인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은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의 감소로 양육자에게 의존하는 영아들과 같이 성인자녀들에게 의존한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상황은 분리불안과 애착인물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유발함으로써 보살핌 제공자에 대해 근접을 유지하려

는 다양한 애착행동들을 촉진시킨다. Wright와 Hickey, Buckwalter 및 Clipp(1995)은 노인들에게 흔한 만성질환으로 알츠하이머 질환과 뇌졸중 노인들에서 나타나는 보살핌 제공자를 향한 매달리기, 요구하기, 근접추구행동들이 양육자와의 분리에 직면한 영아들의 행동과 동일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렇다면 질병 전 애착양식은 질병발병 후의 환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가? Magai와 Cohen, Culver, Gomberg, 및 Malatesta(1997)는 치매노인 환자들의 가족구성원들에게 Hazan과 Shaver(1987)의 3범주 척도를 사용하여 환자의 질병 발병 이전의 애착양식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질병 발병 이전의 안정형 애착은 질병 발병 후에 긍정적 정서의 더 잦은 표현과 연결되고 회피형 애착은 부정적 정서표현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Magai와 Cohen(1998)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특히 회피형 애착양식을 가졌던 치매환자들은 질병 발병 후에 더 높은 수준의 경멸과 분노 그리고 억압을 나타내었고, 불안/양가형 애착을 나타내었던 환자들은 질병 발병 후에 더 높은 수준의 불안과 슬픔을 나타내어 질병 발병 이전의 애착양식은 현재의 치매증상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Miesen(1998)은 치매와 알츠하이머 노인들이 나타내는 부모고착(parent fixation) 현상도 애착이론의 틀 내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부모고착은 알츠하이머 노인들이 그들의 부모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현상으로 보통 치매 초기의 환자들은 가족구성원이나 보살핌을 주는 사람에게 애착행동을 나타내지만 치매가 진행되면 부모고착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Ainsworth의 낯선 상황과 유사한 구조화된 관찰기법으로 표준적 방문절차(Standard Visiting Procedure)를 사용하여 치매노인들의 만지기, 울기

그리고 가족구성원들에게 향하기와 같은 애착행동을 연구한 Miesen(1998)은 치매노인들이 초기에는 안정성의 외적 근원에 의존하지만 치매가 진행되면 안정성의 내적 근원에 더 많이 의존함으로써 부모고착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국 개인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질병발병 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보살핌 제공자와의 상호작용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생초기에 불안정한 애착관계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똑같이 불안정한 애착관계는 노부모-성인자녀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관계에 미치는 애착의 영향이 체계적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문화에서와 같이 노부모를 보살피는 사람이 중년의 딸이 아닌 며느리일 때도 동일한 애착역동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함께 규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애착과 노년기 안녕 및 사별의 관계

애착과 노년기 안녕의 관계는 최근 노년기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이 특히 많은 관심을 갖는 주제이기도 하다(Bradley & Palmer, 2003). Bowlby(1982)의 주장대로 개인의 애착체계는 취약성과 분리 그리고 상실과 연결된 괴로움의 시기에 특히 강하게 활성화되므로 노년기의 안녕은 애착체계와 무관할 수 없다. 비록 그 결과가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이 분야의 전체적인 결과는 노인들의 안녕은 애착대상의 존재여부는 물론 그들이 어떤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Andersson과 Stevens(1993)는 그가 누구이든 애정적인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낮은 수준의 불안과 고독을 경험한다

고 보고하고 애정적 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Bradley와 Cafferty(2001) 같은 연구자도 애착 안정성이 다양한 맥락에 걸쳐 성공적 노화와 연합되어 있다고 보고하여 애착안정과 심리적 안녕은 서로 관련된 개념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애착과 안녕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평균연령 67.9세의 캐나다 노인 76명을 대상으로 애착양식과 안녕 간의 관계를 연구한 Webster(1997)는 안정형 애착양식과 거부형 애착양식을 갖는 노인들이 두려워하는 회피형 애착양식을 갖는 노인들보다 더 큰 행복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타인에 대해 긍정적 모델을 갖는지 혹은 부정적 모델을 갖는지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에 대해 긍정적 모델을 갖는 사람들만이 더 큰 행복을 경험하였다. 49명의 독일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성인애착 면접을 실시한 Wensauer와 Grossmann(1995)도 안정형 애착을 갖는 노인들이 불안정한 애착을 갖는 노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활만족과 더 좋은 신체적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제는 2개의 연구 모두 각 애착양식에 할당된 연구대상자들의 수가 너무 적어 일반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서 Wensauer와 Grossmann의 연구에서는 단 두명의 노인들만이 불안정한-방어형 애착으로 분류되었고, Webster의 연구에서는 단지 2명과 9명만이 몰입형 애착과 두려워하는-회피형 애착에 할당되었다.

애착은 인생후반에 가족구성원의 도움이 요구될 때,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을 조절함으로써 안녕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Eva-Maria & Consedine, 2009).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정서적 지원은 더 높은 안녕과 연합되는 반면, 도구적 지원은 감소된 안녕과 연합된다(Reinhardt, Boerner, & Horowitz, 2006). 실제로 도구적 지원은 매일의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 기능적 의존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Merz와 Consedine(2009)의 연구에서 높은 애착안정성을 지니고 있는 노인들은 도구적 지원으로부터 더 적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정서적 지원으로부터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은 노년기의 지원과 안녕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높은 애착안정성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자기와 타인에 대해서는 물론 가까움이나 친밀함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지니고 자율성과 타인과의 상호의존성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므로(Merz, Schuengel, & Schulze, 2007),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 모두에 대해 더 긍정적 태도를 갖고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을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다.

애착이론은 노년기의 안녕뿐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의 사별 후에 경험하는 슬픔에서의 개인차를 이해하기 위한 틀로도 자주 활용된다(Bowlby, 1980). 애착인물의 죽음에 대한 반응은 애착이론이 제시되기 오래 전부터 발달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주제로서, 그들은, 애착인물과의 사별 후에, 어떤 반응이 정상이고 어떤 반응이 병리적인지를 구별하려고 하였다. 일찍이 Freud(1957)는 병리적 애도는 사망한 사람과 양가적 관계를 갖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하고 그것은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특징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별에 의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근접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전형적으로 애착행동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므로, 애착의 불안정성은 사별에 대한 부적응적 행동을 초래하기 쉽다. Prigerson 등(1995)은 불안정한 애착역사와 병리적 애도(Mourning)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인생초기의 양육자와의 분리와 상실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애착이 인생 후반기에도 애착인물의 상실에 대한 반응을 주도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상실과 슬픔반응에서의 애착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전집에서의 애착과 사별과정의 관계는 많이 연구되지 못하였다. 일찍이 노인 미망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Sable(1989)은 안정된 아동기 애착을 갖는 노인 여성들은 남편과의 사별 후에 더 적은 괴로움을 경험한 반면, 남편에게 의존적이었던 미망인들은 더 큰 괴로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의존성은 불안정한 애착의 전형적 특성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Sable의 결과는 배우자에 대한 불안한 애착이 병리적 사별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노인이 아닌 중년의 미망인 집단에서의 슬픔반응을 연구한 Parkes와 Weiss(1983) 역시 배우자에 대해 강한 의존을 보고한 여성들이 더 큰 병리적 슬픔반응을 나타내었고, 양가적 혹은 갈등적 관계를 가졌던 미망인들이 더 큰 그리움과 외로움 및 분노와 버림받은 감정을 경험한다고 보고함으로써,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배우자 상실 후의 슬픔반응의 본질과 심각성을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의 과제

위에 개관된 5가지 연구주제들은 모두 후속연구를 필요로 하는 노년기 애착관련 연구분야들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주제들을 연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첫째, 애착이론에 따르면, 모든 애정적 유대가 애착유대는 아니므로 애착유대와 애정적 유대는 구별되어야 한다. Antonucci 등(2004)의 연구에서 내부원 속에 포함될 사람들을 선택하게 할 때 “그

들과의 가까움과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애착관계는 “필요의 시기에 보호와 위안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해야만 한다(Bowlby, 1988). 다시 말하면 애착은 근접추구(proximity seeking)와 분리저항(separation protest), 안전한 피난처(safe haven) 그리고 안전기지(secure base)의 4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Hazan & Zeifman, 1994). 따라서 어린 자녀와 부모가 가깝고 중요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할지라도, 어린 자녀는 부모에게 안전한 하늘이나 안전기지의 역할을 하기 어려우므로 어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은 애착유대가 되지는 못한다. 만약 부모가 어린 자녀를 애착대상으로 인식한다면, 그것은 어린 자녀를 부모의 안전기지로 삼는 병리적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관계에서는 자녀도 부모에게 네 가지 애착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18세부터 82세까지의 광범위한 연령층을 연구한 Hazan과 Zeifman(1994) 연구에서 보호와 지원을 얻기 위해 의지하는 사람으로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낭만적 파트너’, ‘친구’, ‘선생님’, ‘치료자’, 그리고 ‘신’이 언급됨으로써 애착인물은 단지 가깝고 중요한 관계 파트너들이 아니라 보호와 지원이 요구될 때 개인이 의지할 수 있는 특정한 개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자기보고 애착척도를 사용하여 애착의 질적 특성을 측정하면 성인들은 연령증가와 함께 점점 더 안정형 애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청년기나 성인초기에 불안정했던 사람들도 안정적인 애착인물을 만나거나 혹은 성숙의 결과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서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애착양식을 측정하면 안정형보다는 거부형 애착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거부형 애착이 노년기의

전형적 애착양식으로 자주 보고된다. 문제는 노인들의 애착양식을 측정할 때 낭만적 관계에서의 애착양식을 평정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 척도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척도들이 사용될 때, 노인들은 낭만적 관계로부터의 철회를 나타내기 위해 “거부적” 유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18세부터 77세까지의 개인들을 연구한 Ross와 Spinner(2001)는 일반적 애착양식을 평정했을 때와 구체적인 관계 맥락에서 애착양식을 평정했을 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찍이 Bowlby(1982)는 각 개인이 중다의 애착 작동모형을 가질 수 있고, 각 모델은 서로 같등할 수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Mikulincer와 Shaver(2001)는 맥락에 따라 상이한 애착모델이 활성화되고 그것들은 자기개념과 방어 그리고 행동에 각기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애착은 일반적, 전체적 애착양식과 구체적인 애착대상에 대한 애착양식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관계맥락에서의 애착양식을 측정한다면 노인들의 거부형 애착양식의 비율은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자주 애착의 질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애착의 정도나 강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불안정한 애착을 지니고 있다고 할 때, 그들 모두가 동일한 강도로 불안정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불안정한 정도가 크고 작음에 따라 개인의 행동양상은 달라질 것이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질적 특성은 물론 애착의 강도도 함께 측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애착이론은 발달이론이다. 그것은 전생애 동안의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행동에서의 안정성과 변화를 다루기 때문에 중단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단연구는 횡단연구로부터 추론된 인과관계의 타당성은 물론 애착표상의 연령관

련적 재조직화가 언제 어떤 사건에 의해 일어나는지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안정한 애착이 어떤 과정에 의해 안정된 애착으로 변화하고, 노년기에 이르면 개인의 애착양식은 거부형 애착양식으로 변화하는지, 변화한다면 어떤 사건이나 과정에 의해 변화하는지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중단연구는 노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에서 애착인물의 기능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역전되고, 동물을 포함하여 신과 같은 다른 대상으로 애착유대의 전환이 언제, 어떤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도 규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넷째, 애착행동체계는 Bowlby가 제안한 유일한 행동체계가 아니며, 그것은 탐색행동체계나 공포행동체계 혹은 양육제공체계 등과 함께 작동한다. 애착행동체계란 개인이 외적, 내적 단서에 반응하여 애착인물에게 반응하는 다양한 행동군으로 다양한 상황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다른 행동체계들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그 예로서 탐색행동체계는 영아가 음식물을 얻고 도구를 사용하며, 물리적 장애에 대처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것은 애착인물과 근접이 유지되어 보호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하므로 Ainsworth(1972)는 애착행동체계와 탐색행동체계 사이의 역동적 평형을 가정하였다. 공포행동체계 또한 애착행동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공포는 위협에 대한 자연적 단서로서 놀란 영아들은 그들의 애착행동을 증가시키고, 놀라게 하는 자극을 발견한 영아들은 애착대상을 찾을 것이다. 만약 애착인물이 활용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인물로 지각되면 공포를 유발하는 자극에도 영아는 큰 공포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Sorce & Emde, 1981). 대조적으로 양육제공체계는 아동이 실제적 혹은 잠재적 위협 상태에 있다고 지각되거나 아동의 공포행동체계가 활성화될 때, 아동과의 근접성과 위안을 증진시키

기 위한 부모의 행동들로서 아동의 공포행동체계의 활성화를 약화시키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행동체계들은 서로 상호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애착에 관한 연구는 오로지 애착행동체계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다른 행동체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실제로 각 개인은 애착인물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 외에 많은 다른 체계들의 영향도 함께 받기 때문에, 미래에는 다양한 체계를 함께 고려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년기 동안 거부형 애착의 비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애착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일치 가설을 적용한다면 거부적 애착양식의 소유자들은 신에게도 동일한 애착양식을 전이할 것이므로 신에 대한 애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설명은 거부형 애착은 다른 사람과의 가까운 관계에 대한 방어적 회피나 탈애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신과 같은 존재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인들은 애착인물의 상실이나 질병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한 인식과 같은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전의 애착양식과는 관계없이 신에 대한 애착이 증가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이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일치가설과 보상가설 중 어느 가설이 더 타당한지, 특히 거부형 애착을 갖는 노인들이 신에 대한 애착을 어떻게 발달시키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신에 관한 애착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신에 대해 지속적 애착을 갖는 것이 가능한가이다. 사람들은 자주 그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되거나 연속적으

로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신을 거부한다(Pargament, 1997). 신에 대한 애착을 철회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도 앞으로 규명해야할 또 다른 연구과제일 것이다.

결 론

이 논문은 노년기 동안의 애착대상의 변화와 신에 대한 애착, 애착양식의 변화, 애착과 보살핌 제공자-수령자간의 관계 그리고 애착과 노년기 안녕 및 사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개관하고 이러한 주제들을 역점두어 연구할 수 있기 위해 요구되는 5가지 과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년기의 애착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노년기 애착에 관한 연구들은 기존의 성인애착 척도를 수정하거나 개작한 간접적 애착지표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직접적 애착지표로서 표준적 방문절차도 사용되고 있다(Miesen, 1993, 1998; Steele et al, 2004). 그러나 표준적 방문절차와 같이 분리와 재결합을 포함하는 실험상황은 애착행동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아나 치매 노인같이 연구대상자가 무기력할 때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현재까지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Hazan과 Shaver(1987)의 3범주 척도나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4범주 애착척도 그리고 3범주와 4범주 척도를 연속적 척도로 변환시킨 Collins와 Read(1990)의 성인애착 질문지 및 Griffin과 Bartholomew(1994)의 관계척도질문지 등이 자주 사용되고 때로 성인애착면접(AAI: Adult Attachment Interview)(George, Kaplan & Main, 1996)도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척도들이 모두 Bowlby(1988)

가 제안한 “필요의 시기에 보호와 위안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애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가이다. 이 논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노년기 애착연구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과제는 노년기 동안의 애착양식의 변화 여부이므로 Hazan과 Shaver(1987)의 3범주 척도나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4범주의 애착척도 같은 범주적, 차원적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애착의 연속적 점수들은 애착과정에 대한 더 분화된 검토를 가능하게 하지만, 노인들은 애착양식의 분포에서 젊은이들보다 더 불균형적인 특성을 보이므로(Considine & Magai, 2003) 차원적, 범주적으로 분류된 애착양식이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사용되는 척도가 범주적 척도이든, 연속적 척도이든 혹은 면접이든, 애착을 연구할 때는 두 가지 이상의 측정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한 애착의 지표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Bowlby(1982)의 주장대로, 인간의 애착 관련 행동은 복잡하고 그 행동들은 중다의 갈등하는 정신적 표상에 기초하며, 동시에 맥락적 영향도 받기 때문에 단일적인 측정방법으로는 애착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어느 연령에서든 애착불안정성은 불안이나 부정적 정서성 혹은 신경증적 경향성과 같은 성격특성들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므로(John & Srivastava, 1999), 애착을 측정할 때는 두가지 이상의 측정도구를 사용하면서도 일반적 불안이나 신경증적 경향성을 통제함으로써 순수한 애착효과를 규명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애착연구들은 영아기와 아동기 애착을 주로 연구하였고 성인들을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젊은 성인들의 낭만적 관계 맥락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앞으로의 연구는 분리와 상실, 질병과 고통

으로 괴로움을 겪는 노년기에서의 애착을 연구함으로써 노년기 안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생동안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하므로 애착관계에 관한 연구는 인간관계의 기저의 역동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만약 애착연구를 통해 노년기 동안의 관계 역동이 규명될 수 있다면, 역할역전이 이루어진 성인자녀와의 관계와 형제자매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삶과 죽음의 관계, 애완동물과의 관계, 심지어 신과의 관계까지 다양한 관계가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장휘숙(1997).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 123-138.
- 장휘숙(2006). 애착에 대한 새로운 접근. 2006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76-277.
- Ainsworth, M. D. S. (1972). Attachment and dependency: A comparison. In J. L. Gewirtz (Ed.), *Attachment dependency* (pp. 97-137). Washington, DC: V. H. Winston.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ndersson, L., & Stevens, N. (1993). Associations between early experiences with parents and well-being in old age.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48(3), 109-116.
- Antonucci, T. C. (1986). Social support networks: A hierarchical mapping technique. *Generations*, X(4), 10-12.
- Antonucci, T. C., Akiyama, H., & Takahashi, K. (2004). Attachment and close relationships

- across the life span.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6(4), 353-370.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I.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NY, US: Basic Books.
- Bradley, J. M., & Cafferty, T. P. (2001). Attachment among older adults: Current issue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3(2), 200-221.
- Bradley, J. M., & Palmer, G. (2003). Attachment in later lif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with older adults. In S. M. Johnson, V. E. Whiffer (Eds.), *Attachment processes in couple and family therap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arstensen, L. L. (1992). Social and emotional patterns in adulthood: Support for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Psychology and Aging*, 7, 331-338.
- Cicirelli, V. G. (1996). Emotion and cognition in attachment. In C. Magai & S. H. McFadden (Eds.), *Handbook of emotion, adult development and aging* (pp. 119-13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Cicirelli, V. G. (2004). God as the ultimate attachment figure for older adult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6(4), 371-388.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onsedine, N. S., & Magai, C. (2003). Attachment and emotion experience in later life: The view from emotions theory.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5, 165-187.
- Crispi, E. L., Schiaffino, K., & Berman, W. H. (1997). The contribution of attachment to burden in adult children of institutionalized parents with dementia. *Educational Research*, 37, 52-60.
- Diehl, M., Elnick, A. B., Bourbeau, L. S., & Labouvie-Vief, G. (1998). Adult attachment styles: Their relations to family context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656-1669.
- Eva-Maria, M., & Consedine, N. S. (2009). The association of family support and wellbeing in later life depends on adult attachment style.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1(2), 203-221.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281-291.
- Fiori, K. L., Consedine, N. S., & Magai, C. (2009). Late life attachment in context:

- Patterns of relating among men and women from seven ethnic groups. *J. Cross Cult Gerontol* 24: 121-141.
- Freud, S. (1957). Mourning and melancholia. In J. Strachey (Ed. and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14, pp. 243-258). London: Hogarth Press.
- George, C., & Solomon, J. (1999). Attachment and caregiving: The caregiving behavioral system.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649-670). New York: Guilford Press.
- George, C., Kaplan, N., & Main, M. (1996). *Adult Attachment Interview Protocol* (3rd ed).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Griffin, D. W., & Bartholomew, K. (1994). The metaphysics of measurement: The case of adult attachment.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azan, C., & Zeifman, D. (1994). Sex and the psychological tether.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pp. 151-177). London: Sessica Kingsley.
- John, O. P., & Srivastava, S. (1999). Th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L. A. Pervin & O. P. Joh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2nd ed., pp. 102-138). New York: Guilford Press.
- Kafetsios, K., & Sideridis, G. D. (2006).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in young and older adult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 863-875.
- Kirkpatrick, L. A. (1994). The role of attachment in religious belief and behavior.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pp. 239-265). London: Jessica Kingsley.
- Kirkpatrick, L. A. (1998). God as a substitute attachment figure: A longitudinal study of adult attachment style and religious change in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961-973.
- Kirkpatrick, L. A. (1999). Attachment and religious representations and behavior.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803-822). New York: Guilford Press.
- Kunce, L. J., & Shaver, P. R. (1994). An attachment-theoretical approach to caregiving in romantic relationships.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pp. 205-237). London: Jessica Kingsley.

- Lechich, M. L. (1996). Empathy and its importance in long-term home health care. *Journal of Long-Term Home Health Care: The Pride Institute Journal*, 15, 15-23.
- Long, M. V., & Martin, P. (2000). Personality, relationship closeness, and loneliness of oldest old adults and their children.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55B, 311-319.
- Magai, C., & Cohen, C. (1998). Attachment style and emotion regulation in dementia patients and their relation to caregiver burden.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3B, 147-154.
- Magai, C., Cohen, C., Culver, C., Gombert, D., & Malatesta, C. (1997). Relation between premorbid personality and patterns of emotion expression in mid- to late-stage dementia.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2, 1092-1099.
- Merz, E.-M., & Considine, N. S. (2009). The association of family support and wellbeing in later life depends on adult attachment style.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1(2), 203-221.
- Merz, E.-M., Schuengel, C., & Schulze, H.-J. (200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Aging Studies*, 21, 175-186.
- Miesen, B. M. L. (1993). Alzheimer's disease, the phenomenon of parent fixation, and Bowlby's attachment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8, 147-153.
- Miesen, B. M. L. (1998). Attachment behavior in dementia: Parent Orientation and Parent Fixation (POPFID) theory. In G. H. Pollock & S. I. Greenspan (Eds.), *The course of life: Vol. 7. Completing the journey* (pp. 197-229). Madison, CT: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Mikulincer, M., & Orbach, I. (1995). Attachment styles and repressive defensiveness: The accessibility and architecture of affective mem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17-925.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1). Attachment theory and intergroup bias: Evidence that priming the secure base schema attenuates negative reactions to out-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97-115.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3). The attachment behavioral system in adulthood: Activation, psychodynamics, and interpersonal processes.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5, pp. 53-152). New York: Academic Press.
- Pargament, K. I. (1997).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coping: Theory, research, practi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Parkes, C. M., & Weiss, R. S. (1983). *Recovery from bereavement*. New York: Basic Books.
- Prigerson, H. G., Maciejewski, P. K., Reynolds, C. F., Bierhals, A. J., Newsom, J. T., Fasiczka, et al. (1995). 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 A scale to measure maladaptive symptoms of loss. *Psychiatry*

- Research*, 59, 65-79.
- Reinhardt, J. P., Boerner, K., & Horowitz, A. (2006). Good to have but not to use: Differential impact of perceived and received support on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3, 117-129.
- Rholes, W. S., & Simpson, J. A. (Eds.) (2004). *Adult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New York: Guilford Press.
- Ross, L. R., & Spinner, B. (2001). General and specific attachment representations in adulthood: Is there a relationship?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6, 747-766.
- Rothbaum, F., Weisz, J., Pott, M., Miyake, K., & Morelli, G. (2000). Attachment and culture: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American Psychologist*, 55(10), 1093-1104.
- Sable, P. (1989). Attachment, anxiety, and loss of a husband.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550-556.
- Sorce, J., & Emde, R. (1981). Mother's presence is not enough: Effect of emotional availability on infant explor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745.
- Steele, H., Phibbs, E., & Woods, R. T. (2004). Coherence of mind in daughter caregivers of mothers with dementia: Links with their mothers' joy and relatedness on reunion in a strange situation.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6(4), 439-450.
- Takahashi, K. (2005). Toward a life span theory of close relationships: The effective relationships model. *Human Development*, 48, 48-66.
- Webster, J. D. (1997). Attachment style and well-being in elderly adult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anadian Journal on Aging*, 16(1), 101-111.
- Wensauer, M., & Grossmann, K. E. (1995). Quality of attachment representation, social integration, and use of network resources in old age. *Zeitschrift für Gerontologie und Geriatrie*, 28, 444-456.
- Wink, P., & Dillon, M. (2002). Spiritual development across the life course: Findings from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9, 79-94.
- Wright, L. K., Hickey, J. V., Buckwalter, K. C., & Clipp, E. C. (1995). Human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aging and chronic illness: The role of attachment in Alzheimer's disease and strok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1, 133-150.
- Zhang, F., & Labouvie-Vief, G. (2004). Stability and fluctuation in adult attachment style over a 6-year period.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6, 419-437.

1차 원고 접수: 2010. 07. 05

수정 원고 접수: 2010. 08. 07

최종 게재 결정: 2010. 08. 08

Attachment Study in Older Adult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Hwee-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reviewed the research applying attachment theory to older populations and suggested the tasks for future research. Research themes being addressed in this review are as follows: (1) changes of attachment figures; (2) attachment to god; (3) changes of attachment style; (4) relationships of giver-receiver in caregiving; (5) relationships of attachment to wellbeing and bereavement. For future research of themes reviewed in this study, 5 problems to need to be solved were suggested. Although Bowlby asserted attachment representations were likely to exert influence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early attachment studies were based heavily on observations of infants and children and in later romantic relationships or marital relationships of adults. As the potential for distressing separation and loss experiences increases with old age, attachment study would contribute to improve the well-being in old age.

Keywords: attachment, attachment figure, old age, well-being